

基礎棟樑歌



[해제]

<기초동량가>는 남송(南松) 허욱(許昱)이 지은 아주 짧은 가사 작품으로 『남송선생실기(南松先生實記)』에 실려있다. 형식적으로 매우 짧은 작품이어서 가사 작품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나, 각구가 가사의 전형적인 음수율인 4·4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사로 포함시켜도 될 듯하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보듯이 증산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요소들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 ‘금궐옥방(金闕玉房)’처럼 신실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지은이의 소망이 담겨 있다.

[원문]

兒松歌

여보아라 兒松들아 靑春보고 조타말라 여보아라 靑春들아 白髮보고 웃지마소 無情歲月이 若流波라 綠水秦京 저은날에 開

花時節 조타해도 綠陰芳草 勝花時라 綠陰芳草 조타해도 秋菊春蘭이 各有時라 稻熟魚肥 조흔때에 鳶飛戾天 氣運밧아 魚躍

干淵 노라보세

四師歌

姜姜姜巡 體巡體暫間 노라보세 指路師의 敎訓바더 물줄잡고 도라드니 淵源道通이 이안닌가姜姜姜巡 體巡體暫間 노라보

세

理會師의 敎訓바더 理致줄을 通해보니 開闢時代 的實하세姜姜姜巡體巡體暫間 노라보세

禮會師의 敎訓바더 中和門을 열고보니 義理床道德이 分明하세 姜姜姜巡體巡體暫間 노라보세

緣會師의 緣를바더 地德밧고 오나서니 天命德이 이안닌가姜姜姜巡 體巡體暫間 노라보세

引陽歌

우거라 우거라

西쪽 줄넘겨 東쪽에 매고

北쪽줄 넘겨 南쪽에 매어

中央黃氣 소사쓰니 大同世界 이안인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千秋萬歲 발근道德 어이그리 더디던고

오고가는 저少年아 가기는 가소만는

情誼나 두고가소

가기는 가소만는 義理 나두고가소

여섯질 水門속에 드러다시 煉하여

人道還生 하고보면 자네도 내속알고

나도자네 속알꺼시네

日落西山 해떠러지고 月出東嶺 소사온다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米峰山上 뜨는달빛 우리先魂 魄일네라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基礎棟樑歌

西海八方 人道년출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石城에 黃菊花는 黃極體를 이루와스니

黃極神將 本을바다 이줄저줄 邪氣줄를

東西로 갈라내니 和氣春風이 完然하세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赤松南宋花松 가지에 靑鶴白鶴이 춤을춘다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歸蜀道 不如歸는 故國山川를 넘어다본다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이줄저줄 社會년출

어그영 어그영 당겨주소

基礎棟樑歌

地德水로 바탕짓고 月光珠로 柱礎눅코

四師로 기동세워 天德水로 뚜경하고

五行水로 띠를매여 金闕玉房을 지어보세

半月歌

日落西山 해떠러 지니고

月出東嶺 달도 다온다

初生달은 半章을 실꼬오은

章실노 西天西域으로 건너간다

[현대역]

기초동량가

지덕이 담긴 물로 바탕을 짓고
달빛 보석으로 주춧돌을 놓고
네 명의 스승으로 기둥을 세워
하늘의 뜻이 담긴 물로 뚜껑을 만들고
오행의 물로 띠를 매어
금으로 만든 궁궐과 옥으로 만든 방을 지어보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